

Hospital Tour in Singapore

싱가포르 병원견학

임진우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Lim, Jinwoo

견학기간: 2012년 8월 6일~8월10일 (금)

참가인원: 박재승(한양대학교), 곽건섭(무영건축), 김상길(에이텍건축), 서상문(본디건축), 서현보(서울시립대학교), 유영민(경남대학교), 윤성식(범건축), 임영수(구간건축), 임진우(정림건축), 채철균(광운대학교), 최광석(세한대학교), 이현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유재현(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수로(한양대학교 대학원), 한석범(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승용(아키투어) 16명

8월 6일 (월)

싱가포르 출발시간이 오후 6시 반이므로 인천공항에 집결시간은 오후 4시로 정했다. 싱가포르는 기온과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적도부근의 지역이라서 8월 한여름에 답사하는 일정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서울의 폭염도 절정인 시기라서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여행 가방을 챙겨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에 올랐다.

서현보 교수는 하루 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라 예정대로 공항에서 15명의 우리 일행은 탑승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대기 후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현지에 도착하니 시차 1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11시가 넘었고 전세버스에 올라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현지 가이드에게 싱가포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인구 약 460만명, 국토면적은 서울시보다 약간 더 넓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라고 한다. 현재 싱가포르 GDP는 5만달러 이상, 수출규모 8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작지만 강한 선진국이다. 협소한 영토에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등 도시국가로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싱가포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무역, 해운,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어느덧 호텔에 도착, 호텔 체크인 후 하니 12시가 넘었기에 모두 객실로 향했다.

8월 7일 (화)

아침 일찍 호텔에서 조식을 마친 후 버스에 탑승한 후 북쪽에 위치한 YISHUN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 위치한 Khoo Teck Pua Hospital은 600 병상급의 규모로 친환경 건축의 건축개념을 잘 실현한 사례로서 모범적이다. 병원은 크게 3블럭으로 나누어져 외래동과 공공의료병동, 그리고 고급화 된 사비병동과 진료동이며 전체적으로 V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V자의 넓은 방향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 더운 공기가 수면을 거쳐 식은 상태의 바람으로 변하여 병원동으로 불어가도록 배치했고 건물의 입면은 일부 더블스킨의 루버로 처리하여 빛 조절과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다. 건물 파사드에는 녹색 식물을 랜덤하게 조성하여 디자인 모티브가 환경친화라는 인상을 갖게 하였고 각 층 공용공간에 배치된 수생식물과 함께 그 물속에서 자생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내원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특히 건물옥상에는 유기농 채소류를 재배하여 환자급식의 주재료로 직접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Khoo Teck Pua Hospital 모형



[그림 2] Khoo Teck Pua Hospital 아뜨리움



[그림 3] Khoo Teck Pua Hospital 호수전경



[그림 4] Khoo Teck Pua Hospital 옥상농장



[그림 5] Khoo Teck Pua Hospital 유리루버



[그림 6] Khoo Teck Pua Hospital 중환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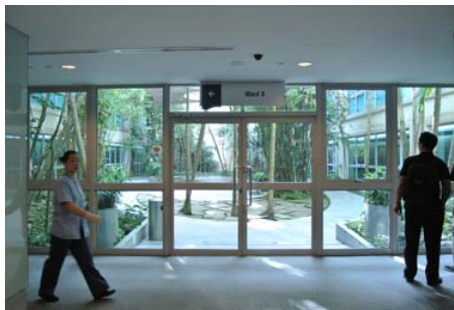
이곳의 덥고 습한 기후를 반영한 듯 저층부는 필로티와 지붕과 기둥으로만 형성된 외부공간들이 많아 직사광을 피하며 걷는 공공보행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부는 오픈형 병실을 채택하였고 놀랍게도 외피의 루버에 의한 일사량 조절과 건물의 맞통풍 효과를 활용하여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없이 천장에

부착된 대형 선풍기만으로도 실내온도는 시원한 효과를 갖게 한다.

참고1 : KhooTeckPuat Hospital (<http://www.ktph.com.sg/main/home>)

다음은 Raffles Hospital에 들렀는데 지어진 지 오래된 병원이라서 건축적인 특징은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 않아 아쉬움이 느껴졌다. 다만 각 층 별로 전문화되어있는 진료과에서 저마다의 고급 진료를 지향하고 있는 병원으로, 공용부외에는 사진촬영도 금지되고 별도의 안내자가 없이 자유견학을 해야 했으므로 그냥 인테리어 분위기만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만 저층부 옥상의 작은 정원에서 작동되던 조각분수는 재미있는 수공간으로 기억된다.



[그림 7] Raffles Hospital 내부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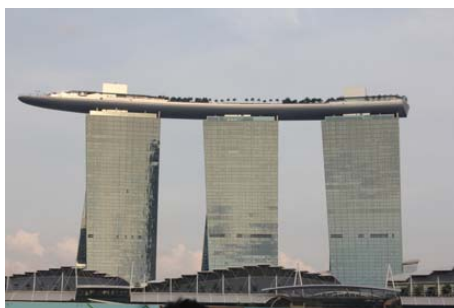


[그림 8] Raffles Hospital 입구홀

참고2 : RafflesHospital (www.raffleshospital.com)

이 후 견학일정은 마이나 베이로 이동했고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을 비롯하여 저층부의 복합상업공간과 외부 수변덱크를 답사했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고 건축가 Moshe Safdie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국내 건설사인 쌍용건설이 포스트텐션과 특수 가설구조물 설치 공법 등을 적용해 해외건설부문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건축 프로젝트로 꼽힌다. 3개의 매스위에 배모양의 스카이파크로 상부를 연결하여 매우 상징적인 도시풍경을 제공한다. 스카이파크에 올라보니 마리나베이를 둘러싼 금융가의 고층빌딩 숲이 한 눈에 들어오고 투숙객 전용의 전망 좋은 옥외수영장은 싱가포르 도시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상적인 장소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날씨가 무덥고 습해서 땀으로 범벅된 차에 허락만 되면 당장이라도 저 풀장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림 9]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전경



[그림 10]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스카이파크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는 시내중심가 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 한 구간을 야외테이블로 점유하여 자유롭게 야외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활기찬 분위기의 가로 임시식당이다. 음식은 여러 종류의 육류를 꼬치구이로 만들어 맥주와 함께 제공되어 감사소감을 서로 나누기도 하며 피곤한 여정을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8월 7일 (화)

아침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 서쪽지역 west Jurong에 위치한 Jurong Medical Centre를 어렵게 방문했으나 현재 대규모 병원은 신축 중이어서 견학은 불가하고 기존병원조차 견학이 허락되지 않아서 로비만 답사한 후 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고3 : Jurong Medical Centre (www.jurongmedicalcentre.com.sg)

현재 Novena라는 이름으로 복합개발이 일어나는 Novena Medical Center로 이동했다. 이곳은 대규모의 메디컬 타운으로 구성되어 기존병원인 Tan Tock Seng Hospital,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센터와 함께 활용되어 복합의료타운으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ovena 메디컬센터 하부는 쇼핑센터로 활용되어 병원과 쇼핑센터의 공존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지어진 Novena Specialist Center까지 모두 실내브리지로 연결되어 신구건물들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있다. 특히 Novena Specialist Center는 고급형 진료클리닉 전문빌딩으로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편리한 건축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최근 국내도 호텔일부를 점유하여 고급 클리닉 진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컨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블록에 이웃하고 있는 Mount Elizabeth Novena Hospital 역시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빌딩입주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시설적 측면에서는 호텔과 흡사하다. 로비공간과 옥상정원, 환자편익을 위한 시설들이 고급화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림 11] Novena Specialist Center 입구



[그림 12] Novena Medical Center 중정



[그림 13] Mount Elizabeth Hospital 전경



[그림 14] Tan Tock Seng Hospital 내부

참고4 : MountElizabeth Hospital(www.mountelizabeth.com.sg)

싱가포르의 밀집상업공간인 Orchard Road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을 방문하지 않고는 싱가포르의 진면목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곳 Orchard Road이다. 이곳 쇼핑몰에 117m 길이를 점유하며 거리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ION 프로젝트는 서울의 명동거리와 같이 관광객들과 쇼핑객들에게 멋진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미디어 사인보드와 비정형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 조형을 표출하는 거대한 외부캐노피 구조물, 유리알처럼 디자인 된 지하 역사 출입구들 역시 방문객들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있다.

쇼핑센터로 들어와 에스컬레이터로 오르는 아트리움천장 전체는 과감하게 루버와 조명으로 디자인되어 초현실적 실내공간을 연출한다. 저녁식사는 해산물 요리 전문점을 찾았고 맛있는 저녁식사와 멀리 보이는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의 야경을 감상하며 피곤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8월 8일 (수)

답사 마지막 날이어서 호텔에서 조식을 마친 후 체크아웃을 한 후에 여행가방을 모두 차에 싣고 버스에 올랐다. 오전에 방문한 곳은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탈인데 이 곳은 싱가포르 국립병원 단지로 구성되어 종합병원 외에도 암센터 심혈관센터, 안과 병원 등 많은 건물들이 대학 캠퍼스처럼 광활한 대지에 넓게 펼쳐져 있다. 종합병원의 블록도 분산형으로 병동마다 증설이 쉽도록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고 각 병동마다 자기 안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쉽게도 이 날이 싱가포르 국경일이라서 병동에 환자방문을 위한 내원객들의 병동출입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들은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아 텅 빈 외래공간과 외부공간을 답사하는 정도에서 견학을 마쳤다. 외부공간을 걸으며 눈에 띄는 조경구조물은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전천후 코리더인데 모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외부공간으로 이동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금만 걸어도 땀에 젖는 덥고 습한 이 나라의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그늘을 제공하는 장치는 내원객들에게 작지만 큰 배려의 출발로 보여 진다.

일본 건축가인 토요이토에 의해 디자인된 Vivo City로 이동했다. 이곳은 새롭게 부상하는 쇼핑몰을 겸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며 4층에 센토사 섬으로 가는 모노레일 승강장이 위치해 있다. 의류매장 외에도 레스토랑, 카페는 물론 공연장, 수영장, 극장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Vivo City의 디자인 어휘는 대지위치가 항구의 바로 앞에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마치 파도가 흘러가는 듯 보이는 외부형태와 함께 내부공간도 획일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연스럽게 층을 넘다들 수 있도록 쇼핑동선을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옥상에는 공연장과 함께 수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5] Vivo City 전경



[그림 16] Sentosa 전경



[그림 17] 클라키 보드키 전경



[그림 18] 클라키 보드키 전경

이곳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센토사 섬으로 이동했다. 말레이어로 '평화'라는 의미의 센토사 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기지로 사용되다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1970년대부터 테마파크로 개발된 곳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아시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저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주로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디자인 한 시그니처 호텔, 크록포드 타워, 호텔 마이클 등을 맴돌며 포스트모던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인 마이클 그레이브스, 그 만이 가진 고유한 스타일을 감상했다.

피곤하고 지친 발걸음을 스타벅스에서 달콤한 바닐라 라떼 아이스 한잔으로 달래고 Clarke Quay로 장소를 옮겼다. 영국의 건축가 그룹인 Alsop은 클라크 키 수변지구의 극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함께 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거리와 수변광장에 면해있는 기존의 상가들과 전통가옥을 존치하면서 열대기후로 인한 문제점과 게릴라성 폭우를 대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그들과 냉각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아한 우산형태의 캐노피는 4개의 거리와 중앙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덕분에 보행자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받게 되고 야외카페는 활성화되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곳 중앙광장의 거리분수에서 물에 젖은 채 뛰어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조명과 함께 인상적이어서 카메라에 몇 장 담아두었다.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듯 해가 저물고 있다.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제 귀국해야하는 항공시간이 되어 공항으로 출발했다. 모두 출국수속을 마치고 새벽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치고 피곤했는지 모두들 수면모드에 접어든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금요일 아침이다. 저마다 분주하게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는 자동차들이 즐비한 자유로를 바라보며 에너지 넘치는 서울을 실감한다.



이번 싱가포르 답사여행은 싱가포르의 선진병원 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주는 건축과 환경을 함께 견학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 역시 교수직, 설계자, 연구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소감을 나눌 수 있었던 점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었다.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해외답사여서 부담은 있지만 이런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체험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저마다 기억 속에 간직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견학의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잘 알기에 함께 결집하여 무사히 견학을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 특히 학회장으로서 이번 견학기간 리더역할을 잘 수행하신 박재승학회장께 감사와 수고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 향 후 또 다른 해외 선진병원들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기대하며 이번 답사소감을 마무리 한다.

